

# 이단 연구자료

## 1. 구원파

| 교단명칭         | 주요인물                  | 관계기관                        | 사이트                                                        |
|--------------|-----------------------|-----------------------------|------------------------------------------------------------|
| 기독교<br>복음침례회 | 권신찬 · 유병언<br>(서울교회)   | 권신찬 · 유병언<br>(서울교회)         | <a href="http://www.ebcworld.org">www.ebcworld.org</a>     |
| 대한예수교<br>침례회 | 박옥수<br>(기쁜소식<br>강남교회) | IYF<br>(국제청소년연합)<br>기쁜소식선교회 | <a href="http://www.goodnews.or.kr">www.goodnews.or.kr</a> |
|              | 이요한<br>(서울중앙교회)       | 생명의말씀<br>선교회                | <a href="http://www.seoul.jbch.org">www.seoul.jbch.org</a> |

이단대처에 있어서 이단단체의 명칭과 주요 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만 숙지하고 있어도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파는 현재 세 계파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그 중 이요한 측과 박옥수 측이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교단 명칭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요한 측([www.seoul.jbch.org](http://www.seoul.jbch.org))은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역 사거리에 위치한 서울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산하 기관 중 ‘생명의 말씀선교회’가 있다.

박옥수 측([www.goodnews.or.kr](http://www.goodnews.or.kr))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기쁜소식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유관 기관으로 기쁜소식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IYF) 등이 있다. 박씨측은 IYF를 통해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IYF세계대회와 IYF중고대학생영어말하기대회, IYF명사초청강연회, IYF세계문화체험박람회, IYF사진전시회 등이 그것이다. GNC(GOOD NEWS CORPS)라는 ‘TYF해외봉사단’도 조직해 국제행사에 외국인 청소년·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한 성경세미나’ 등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권신찬(사망)-유병언측([www.ebcworld.org](http://www.ebcworld.org))은 서울 삼각지에 위치한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구원파’란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들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핵심으로 정통교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마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는 자신들만 구원받은 무리인 것처럼 주장하기에 정통교회는

그들을 일명 구원파 이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구원파는 안상홍 증인회(일명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과 함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단체 중 하나다. 안증회와 신천지가 호별방문 전도, 설문조사 전도 등을 많이 펼친다면 구원파는 '성경세미나' 등 공개적 집회, 소식지 등을 통해 활발한 포교를 하는 특색이 있다.

구원파에 대처하려면 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파는 기성(1985년 40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집단, 예장 고신(1991년 41회 총회)에서 이단, 예장 통합(1992년 77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 1. 본 교단 제93회 총회(2008년) 보고 자료<sup>1)</sup>

### 1) 설립배경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중 가장 분별하기 힘든 이단이 구원파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 이단들의 특징인 교주 사상도 희박하다. 그들은 성경해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들의 주장의 오류를 간파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기존 교인들의 취약점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쉽게 이들의 주장에 동화되어 빠져들고 만다.

구원파는 사회적으로 대변혁기였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외국인에게 교리를 전수받은 한국인들에 의해 국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구원파의 교리를 전수했던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세계관은 당시 기성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특히 덕 욱은 기성교회를 반 복음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신학공부를 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원파 중 유병언 씨는 덕 욱이라는 미국인으로부터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고 권신찬 씨는 같은 시기에 화란인 독립 포교자 길기수에게 영향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유병언 씨 계열은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 삼각지에 위치한 서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여개 국내 지부를 두고 있다.

이요한 계열의 지도자인 이요한 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일하다가 1983년 이탈한 후

---

1) 제93회 총회보고서 pp. 971~974

대한예수교침례회를 만들어 또 다른 구원파를 이끌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역 네거리  
에 위치한 서울중앙교회를 비롯해 전국에 141개 교회, 해외에 80여개 교회, 4만5000여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옥수 씨는 1960년대 초에 디옥 · 게이스그래스 · 데릭얼 등 독립 포교자들이 운영하던 대  
구 성경학교에서 잠시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 권신찬 유병언씨와 결별하고 1968년 미국인 선  
교사 디옥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1971년 대구 계명대 앞에 대구 중앙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울 · 대전 등 전국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기쁜소식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2004년 현재 국내에  
225개(300여명의 교역자)지교회와 해외에 70개의 지교회(100여명의 선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에는 국제청소년연합(IYF: International Youth Federation)이  
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80개 이상의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교 캠퍼스에 IYF라는 동아리 이름으로 영어 회화를 무료로 가르쳐주며 학생들에  
게 접근하기도 한다. 매년 IYF 세계대회, 사진전시회 중고생 및 대학생 영어말하기대회를 열  
어 젊은이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고 기쁜소식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인터넷으로  
박옥수 씨의 설교를 생중계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미국, 일본, 모스크바, 파라과이 등에까지 진출하여 정통교회를 미혹하고 있  
다. 교세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기쁜소식선교회(Good News Mission), gnn방송  
국, 기쁜소식사, 월간기쁜소식, 링컨학교라는 대안학교도 갖고 있다.

## 2) 구원파의 신학적 문제점

### 가. 회개론

모든 이단들이 정통교회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고, 기성교인들의 체계나 확신을 뒤흔들어  
자기들만의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파는 회개문제를 그렇게 사용한다. 즉 기성교인들  
이 회개하는 모습을 공격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울고불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요,  
또한 회개란 단어를 구원받은 후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적용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는 이것이다.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로써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한 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  
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회개란 오직 구원을 위해 돌이키는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만 가능한데 이미 사해준 죄를 또 다시 사해 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점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결국 울고불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백날을 울고불고 회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해 버리는 것이 구원파이다.

## 나. 인죄론

구원파는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어서 상대가 죄인이라고 답하면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니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임에 틀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더욱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 외에 뽐낼 것도 예수님의 공로 외의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물어서 “죄인이다”라고 하면 지옥의 자식으로 정죄해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강조하던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죄수라고 고백했다(딤후 1:15). 13절에서는 자신이 궤방자요, 행악자였음을 과거시제로 밝히고 나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현재시제로 말했다는 것이다.

## 다. 구원론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

권신찬 씨가 ‘죄사함을 깨닫고’ 유병언 씨가 ‘복음을 깨닫고’ 이요한 씨가 ‘중생을 경험하고’ 박옥수 씨가 ‘거듭난 체험’을 했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써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 구원받은 시각(영적생일)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육적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영적생일을 기억해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육적생일은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적생일도 타인이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 깨달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깨달음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없는데, 저들은 구원에 대한 피동적 깨달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영지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출생 년, 월, 일, 시, 장소를 모른다고 해서 그 부모로부터의 출생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도 그렇다.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 라. 율법폐기론

구원받은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일성수, 십일조, 금식, 새벽기도, 기도 생활까지도 율법이라고 하여 부인하고 있다.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율법의 폐기론은 분명한 이단 교리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선 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 결국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면 방종의 삶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도 없게 된다.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씀할 때는 그 율법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율법일 경우에 한해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율례와 법도 즉 모세의 율법은 다 십자가로 폐한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할례나 제사제도나 절기 등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규례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 율법이 폐했다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일부분의 도덕적인 윤리규범은 신약에 와서 다시 강조되었다. 이러한 율법은 아직도 폐하지 않은 것이고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 3) 연구결론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적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며,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롬 9:16)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주장, 율법 폐기론적 성향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단사상으로 사료된다.

## 2. 기타자료

다음은 예장통합 교단이 1992년 77회 총회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이다.

구원파는 크게 권신찬 계열(기독교복음침례회), 이요한 계열(본명 이복칠,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등 3개 파로 분류할 수 있다. 본류는 권신찬 계열이고, 이요한 계열은 여기서 분파되었다. 박옥수 씨와 권신찬 씨는 ‘딕 욕’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씨는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적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며,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롬 9:16)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단으로 사료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 1) 분파 및 문제점

구원파는 크게 권신찬 계열, 이요한(본명 이복칠) 계열, 박옥수 계열 등 3개 파로 분류할 수 있고, 유사한 교리와 사상을 가진 인사와 무리들이 다수 있다.

#### 가. 권신찬 계열(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 씨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1961년 11월 네덜란드 포교자 길기수(Case Glass)의 영향으로 ‘죄 사함을 깨달았다’는 권신찬 씨와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욕(Dick York)의 영향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유병언 씨에 의해 시작되었다(권씨와 유씨는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 ①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 영이라고 한다.

권신찬 씨는 “(사람들이) 영을 자기의 인격적 활동과 혼돈하여 인격의 일부인 이지(理智)나 감정이나 의지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권신찬 「양심의 해방」, 9쪽)고 주장한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삼분법적 인간 이해에 따라 영과 인격(혼)을 분리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써 결국 이에 상응하여 영이신 하나님조차도 인격이 아닌 존재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② 급박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위험한 지구」, 「임박한 대환란」, 「세계정부와 666」, 「인류파멸의 징조」 등의 책을 통하여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전파하면서 금세기 내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구원과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중재림 때 휴거될 수 없고, 소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있다. 또 구원의 수가 차야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어 휴거된다고 한다(권신찬, 「위험한 지구」, 27~31쪽).

나. 이요한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 씨의 본명은 이복철이다. 구원파의 초창기부터 목포에서 권신찬을 추종했던 인물로서 1962년에 ‘중생을 경험’ 했다고 하며, 권씨에게서 안수를 받았다. 권씨계에서 분파되었기 때문에 신조마저 권씨계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12개항을 약간 수정하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라는 10개항을 만들 정도로 거의 유사하며, 종말론에 있어서 권신찬과 다른 요소가 있으나 구원관에 있어서 권씨와 그 근본이 차이가 없다는 점은 그가 비록 권씨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의 구원파에 불과할 뿐이다.

다. 박옥수 계열(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 씨는 중학교 3학년 중퇴생으로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며 덕 욱이라는 자와 권신찬 씨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1962년 10월 7일 ‘거듭난 체험’ 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을 주제로 전국순회집회를 하고 있다. 그는 풍유적 성경 해석을 오용 및 남용하고 있다(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59~70쪽). 박옥수 씨는 죄와 범죄,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여 반복적 회개는 부인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하나하나를 일일이 고백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며 죄 자체를 인정(自白)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개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한다(「기쁜소식」, 1989년 2월호 7~9쪽, 1989년 3월호, 14~15쪽).



## 2. 안상홍 증인회(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일명 하나님의교회)는 1985년에 별세한 안상홍 씨뿐만 아니라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다. 안상홍·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대놓고 포교하면 아무도 이곳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가호호 방문 전도나 설문조사를 통해 정통교인에게 접근하면서 안식일·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크리스마스나 일요일 예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며 정통교인들을 미혹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회들의 포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기총은 2000년, 이들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예장통합측이 2002년 87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예장합신측이 2003년 88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

### 1. 본 교단 제93회 총회 보고자료

#### 1) 설립배경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5-2에 그 본부(총회장: 김주철)를 두고 있는 집단으로 그 동안 가정파괴,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일반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는 집단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는 1918년 1월 13일에 전북 장수군 개남면 명덕리에서 태어나 1947년에 안식교에 입교하였고, 30세에 안식교 목사 이명덕 씨에게 침례를 받고 소위 〈시기파〉로 1962년까지 안식교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1962년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하여 활동을 하다가, 1985년 2월 25일 67세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식사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장길자(1943년 10월 29일생)라는 여자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 김재훈과 함께 안상홍 증인회의 집사였으나 김재훈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첩이 되었다. 안상홍이 죽은 후 장길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있는 어머니 등으로 주장하여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의 여자 교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 집단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름만으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교주로 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단사상이 있다.

## 2) 신학적 문제점과 비판

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며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고 주장한다(안상홍, 뿔기세텍 출판사,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p. 190, 201). 따라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은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나.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외에 여교주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로 믿는다.

여교주 장길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 나오는 ‘어린양의 아내’ 요 ‘신부’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 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나님의 교회 구역장 교재』, p. 26). 그리고 장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머니, 신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안상홍이 그렇게 신부로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주장이다.

장길자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야 한다. 그러나 장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가 아니다. 장 씨 집안의 딸로 태어난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안상홍은 자신을 재림예수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과 강림 교리다. 성경에서 구름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재림한다는 구절은 모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재림한 예수는 안상홍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마지막 암행어사로 왔다는 것이

다(안상홍,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p. 201).

그러나 성경이 ‘구름=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출 16:10, 겔 10:4), 어떤 때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사 44:22), 어떤 때는 환란과 고난(사 5:30, 습 1:15)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구름을 굳이 ‘인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라.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지킨다.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나 그 증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안식교와 동일하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과,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누가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안식교와 동일하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주후 321년에 칙령을 내려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톨릭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도 안식교와 같다(『하나님의 교회 구역장 교재』, pp. 4-13).

안상홍 집단은 기성교인들을 미혹할 때 가장 먼저 안식일 문제를 내세운다. 물론 이들의 핵심 교리는 교주 안상홍이 하나님이며, 여교주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교주 신격화이지만, 그들이 먼저 내세우는 것은 안식일과 유월절 문제이다. 안식일 문제와 유월절 문제를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들의 목적인 교주 안상홍 신격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마.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시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주장한다.

안상홍 증인회는 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린도 전서 11장 2-15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예배 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김주철 발행, 월간 「십사만사천」, 도서출판 뿔기세텍, 1998년 9월호).

그러나 고전 11장에 있는 수건 문제를 언급하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유전이라고 먼저 밝혔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2절). 즉 이 수건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전하여 준 유전이라는 것이다. 안상홍 집단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수건교

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인지, 바울 자신의 의견인지, 유전인지를 살펴보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계시록 13장 8절, 20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적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월간 「교회와 신앙」, 1997년 11월호, p. 144).

사.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을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정통교인들에게 성탄절 축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미혹하고 있다.

아.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한다.

안상홍 측은 십자가 사용이 우상이라는 주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교도들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상징물이고 표식이다. 결코 우상이 아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안상홍이나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상홍 집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동방을 한국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땅의 거짓 그리스도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소위 ‘동방의 의인, 동방의 독수리’를 자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성경에 예언된 동방은 한국’이라고 억지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스스로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자들은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엘리아복음선교원’의 박명호 등이다. 물론 안상홍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동방의 의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이사야 41:1~2, 46:11 등이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한 곳은 없다. 특히 계시록 16:12에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더라”고 했는데, 유브라데는 한국에 있는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이다(신

11:24; 수 1:4).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엉터리 주장이다.

### 3) 연구결론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으로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집단이다. 현재 이들은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로 모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 [참고 도서 및 자료]

\*구역장 교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회

\*김주철, 일어나 빛을 발하라 1권, 멜기세덱 성서통신 교육원

\*안상홍,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1996년 10월 30일

\*안상홍, 선악과와 복음, 멜기세덱 출판사, 1996년 5월 10일판

\*진용식, 안상홍 증인회의 실체는?, 도서출판성산, 1999년 3월 31일

\*인터넷신문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1997년 11월~1998년 2월, 월간 <현대종교> 1998년 9월부터 ~ 1999년 2월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0년 10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연구보고

\*하나님의교회 홈페이지(<http://www.watv.org>)

## 2. 기타자료

다음은 한기총이 2000년 안상홍 증인회에 대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6동 63-16호에 그 본부(총회장: 김주철)를 두고 있는 집단으로 그 동안 가정파괴,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일반언론에서조차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집단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는 1918년 1월 13일에 전북 장수군 개남면 명덕리에서 태어나 1947년에 안식교에 입교하였고, 30세에 안식교 목사 이명

덕 씨에게 침례를 받고 소위 시기파로 1962년까지 안식교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1962년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하여 활동을 하다가, 1985년 2월 25일 67세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식사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 장길자(1943년 10월 29일)라는 여자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남편 김재훈과 함께 안상홍 증인회의 집사였으나 김재훈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첩이 되었다.

안상홍이 죽은 후 장길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 등으로 주장하여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 집단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교주로 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단사상이 있다.

**1)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며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 주장한다(안상홍, 뿔기세텍 출판사,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190쪽, 201쪽). 따라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은 죽은 안상홍이 다시 강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가 교주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왔으나(눅 1:32) 다윗의 재위 기간인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생애 3년 밖에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홍이 30세에 침례를 받고 67세에 죽으므로 37년간 사역하여 예수님이 하지 못한 다윗의 재위기간 40년을 채웠기 때문에 재림주라고 한다(위의 책, 55쪽).

또 안상홍(安商洪)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새 이름 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14:1-2절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는 말씀에서 ‘많은 물소리 같고’라고 했는데 이는 큰 물 ‘홍(洪)’을 말하고,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한 것은 거문고소리 ‘상(商)’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나님의 교회, 빛을 말하라』 1권, 8쪽).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된 보혜사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

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안상홍' 이라고 한다(위의 책, 8쪽).

2)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외에 여교주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로 믿는다.

여교주 장길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 나오는 '어린양의 아내' 요 '신부' 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 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나님의 교회 구역장 교재, 26쪽). 그리고 장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머니, 신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안상홍이 그렇게 신부로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지킨다.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리를 주장하는 방법이나 그 증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안식교와 동일하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 이라는 출애굽기 31:13, 에스겔 20:20의 말씀과,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누가복음 4:16, 사도행전 17:2의 말씀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라고 한 마태복음 12:8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안식교와 동일하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주후 321년에 칙령을 내려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톨릭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도 안식교와 같다(하나님의 교회, 구역장 교재, 4-13쪽).

4)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안상홍 증인회는 유월절 및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월절은 영생의 길이며, 유월절을 통하여 구속을 받으며 유월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안상홍, 멜기세덱 출판사, 『선악과와 복음』, 54-58쪽).

5)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 시 여자들이 수건 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주장한다.

안상홍 증인회는 예배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린도 전서 11장 2-15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예배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김주철 발행, 월간 「십사만사천」, 도서출판 멜기세

텍, 1998년 9월호).

**6)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 안상홍이 강림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불발로 끝났으며, 또한 1999년 말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였다가 역시 불발로 끝난 일이 있는 집단으로(월간 「교회와 신앙」, 1997년 1월호, 146쪽)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라 할 수 있다.

**7)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자기들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8, 20:12에 보면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적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월간 「교회와 신앙」, 1997년 1월호, 144쪽).

**8) 연구결론**

위와 같은 연구 결과,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는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또 다른 이단으로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집단이다. 현재 이들은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로 모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 3.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유관기관                                                                               | 유관단체 및 기업                      | 유관언론 | 사이트             |
|------------------------------------------------------------------------------------|--------------------------------|------|-----------------|
| 미션네트워크 21C,<br>영원한 복음,<br>건강복음연구회,<br>BACK TO EDEN<br>(여수요양원),<br>무지개 청소년<br>오케스트라 | SDA영어학원,<br>삼육(제품, 학교)<br>위생병원 | 재림신문 | adventistkr.org |

안식교([www.adventistkr.org](http://www.adventistkr.org))는 성도들이 교회나 관련 기관보다도 사업체를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은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은 적지 않은 관련 사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삼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품은 안식교 관련 기업체가 생산해 내는 제품들이다. 대학가에서는 SDA 영어 학원이 유명하다. 이외에도 서울 청량리 인근에 위치한 위생병원이 안식교와 관계된 병원이다.

혹자는 ‘이단은 이단이고 제품이 좋으면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을 한다. 그러나 내가 이단과 유관한 단체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이단단체에 현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다.

안식교 관련 기관들로는 미션네트워크 21C, 재림신문, 영원한 복음, 건강복음연구회, BACK TO EDEN(여수요양원), 무지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다음은 예장통합 교단이 1994년 80회 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 1) 한국의 안식교 현황

미국에서 시한부종말론주의자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사상을 이어 받은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로부터 시작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Seventh day Adventists 일명 안식교)는 1904년에 하와이로 이민 가던 한국인들이 일본 체류 중에 안식교인이 되어 되돌아와 포교를 시작하므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 2)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과 안식교의 출발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소위 시한부종말론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발로 끝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렌 지 화이트가 계시를 받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함으로 생겨난 종파가 모여서 소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Seventh day Adventists)가 만들어졌다.

## 3) 율법적인 구원관

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85쪽, 127~129쪽, 265~266쪽, 『대쟁투 상』 433쪽).

## 4) 안식일 문제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요, 로마 카톨릭은 배도(背道)했으며 개신교회는 성경 진리로부터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151~161쪽, 238~241쪽, 244쪽).

## 5) 계시론

안식교에서는 비록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하나의 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엘

렌 지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그들의 특별계시이다.

특히 말세의 참 교회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엘렌 지 화이트야말로 그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라고 주장함으로 안식교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진 자들이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204~211쪽, 156~157쪽).

## 6) 영혼멸절의 문제

안식교는 여호와 증인의 주장과 같이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소위 영혼멸절설을 취한다. 즉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340~341쪽).

## 7) 연구결론

안식교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지 화이트의 계시론, 영혼멸절설, 영원지옥부재설, 또는 조사심판 및 2300주야 문제 등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건강문제를 앞세우고, 정통교회를 표방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성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4. 이만희(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단문제 전문가들에게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이단 단체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거론할 것이다. 신천지 측이 독특한 포교법으로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는 신도들을 직접 정통교회로 파송해서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이단단체다. 이들은 자신의 신도들을 정통교회로 파송해(일명 ‘추수꾼’ 이라고 한다) 교회와 성도들의 정보를 빼낸다. 그리고 빼돌린 정보를 근거로 신천지 측 제 3의 인물을 정통교회 신도에게 접 근시킨다.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산 옮기기’ 전략도 충격적이다. 선량한 신도로 위장해 교회로 들어간 다음 또 다른 신천지 신도를 정통교회로 전도한 것처럼 위장해 교회에 등록시킨다. 세 력을 규합해 나간 뒤 전도사를 쫓아내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쫓아내는 방법이 그들의 ‘교회 통째로 먹기 수법’ 이다.

신천지에 대처하려면 이단문제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단세미나를 열거나, ‘신천지 대처 세 미나’ 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의 스kill이나 기술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성도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진정한 제자로 성숙시켜야 한다. 이것이 신천지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본 교단이 제80회 총회(1995년)와 제92회 총회(2007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 1. 본 교단 제80회 총회(1995년) 보고자료

#### 1) 이만희의 개인적 이력

##### 가. 출생 배경 및 신앙체험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702번지에 출생하였으며, 17세의 나이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형님 집에 기거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한 전도사의 안내로 창경원 앞에

있는 한 천막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다 할 신앙 체험이 없던 상태에서 낙향하여 풍각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중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박군의 심령」, 「학생 문창 독본」 등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어느 날 신비한 체험을 한 후, 유재열(장막성전) 씨를 열성적으로 추종하다 이탈하여 80년도부터 설파해 온 것이 오늘날의 '무료성경신학'의 모체인 것이다.

#### 나. 학력·경력 및 신학 수업 배경

정상적인 신학 수업을 한 흔적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장막성전의 유재열의 강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되어지고 있다.

#### 2) 교재에 근거한 이단성 분석

고등교재는 계시록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이만희의 「계시록의 진상」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도서출판 신천지, 1986년 판).

가. 자신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보는 자로서 성경 저자와 동등자 내지 그 이상의 존재로 자칭하는 자이며 성경의 충족성을 무시하는 자이다.

“이 책은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보고, 듣고 지시에 따라 증거한 것이므로 이 증거는 참이며 진실이다. 필자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기록한 이 증거가 참인 것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필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3쪽)

나. 자신의 저서만이 참 진리를 담고 있기에 다른 신학자나 목회자의 저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책이 봉함된 오늘날의 목자들이 사 29장의 내용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연구한 주석을 가지고 성경 위에서 왕노릇 하였지만 오늘날 성경이 개봉될 때는 주석(사이비)은 그 빛과 권세를 잃고 감추게 될 것이다.”(91쪽)

“사람이 연구한 주석은 생명이 없으며 주석은 사이비요, 이단의 교리이다.”(92쪽)

### 3) 결 론

- 가. 그들은 성경을 단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로서 정통 성경해석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자들이다.
- 나. 그들은 성경을 비유적 개념으로만 풀어 나아가려고 하는 매우 무지한 소지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 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정상적인 신학수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신학적 기반이 없으므로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매우 위험스러운 자들이다.
- 라. 일정한 그들의 기준에 도달한 자만이 그들의 교회 및 단체에 관여케 하는 비밀집단 체 제 방법을 갖고 있다.
- 마.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기성교회와의 괴리를 시도하며 기성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 바. 건전한 기독교단체인 것처럼 위장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 사.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밝혀지고 있다.

## 2. 제92회 총회(2007년) 보고자료

### 1) 신천지의 창시자 이만희는 누구인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1 벽산빌딩 5층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의 대표, 교주는 이만희(1931년 경북 청도 출생)이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는 1931년 경북 청도군에서 12아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이 ‘만희’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의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 다시 하늘이 열리더니 빛이 나와 어머니에게 비추는 것을 보고 ‘빛’이라는 뜻을 지닌 만희(萬熙)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 씨는 17세의 나이가 됐을 때 서울 성동구 금호동 형님 집에 기거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다 한 전도사의 안내로 창경원 앞에 있는 한 천막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1969년 당시에는 증거장막성전 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하며 유 씨를 열성적으로 추종했고 1970년 초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백만봉 씨를 따라 장막성전을 이탈했다. 백 씨를 추종하던 중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곳을 다시 탈퇴했다. 그 후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새증거장막’이라 하여 지금의 신천지교회를 1980년 3월 14일 세웠다가 1984년 3월 14일에는 12지파를 창설하고 출범하게 된다.

출범할 당시 이만희 씨는 홍종효 씨와 함께 자칭 ‘두 증인’, 또는 ‘모세’와 ‘아론’으로 행세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1987년에 사소한 문제로 다툼 후 결별하게 됐고 홍종효 씨는 자신을 ‘진짜 재림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 씨의 세력은 극히 미미한 반면 이만희 씨의 단체는 점점 세력을 넓혀 정통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에 ‘추수꾼’들을 파송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고 있다. 신천지를 추종하는 자들은 전국의 원생과 교인을 합쳐 약 3만 5천 정도의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12 사도의 이름대로 12지파를 만들어 부르고 있다. 이만희는 자신의 전력 때문에 유재열과 홍종효를 비판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리의 뿌리를 저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 2) 신천지의 교과 과정

신천지는 ‘무료성경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여 가능한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겨 정통교회를 미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복음방’이라는 과정을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을 신학원에 데리고 가기 전까지 훈련하는 또 다른 위장 단체이다. 신천지에는 지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각각 2개월 씩 소요된다.

## 3) 신천지(교주 이만희)의 이단 교리는 무엇인가?

### 가. 신론

① 이만희 씨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한다. 교주 이만희 씨는 자신을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이만희, 『계시록의 진상』, 도서출판 신천지, pp. 36~37).

② 이만희 씨는 자신을 인치는 천사라고 주장한다.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 요한 같은 입장의 지상사명자로서 인을 가지고 해 돋는데서 올라온 다른 천사라고 한다(위의 책, p. 108).

③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이만희는 자신을 사도요한 격인 사람이라고 하며, 또한 이 사도요한 격인 사람이



또 보혜사라고도 주장한다. 이만희 씨는 자신이 저술한 책 표지에 ‘보혜사 이만희 저’ 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즉 이 씨는 자신을 삼위 중 하나라고 신격화한다는 얘기다(이만희, 『계시록의 진상 2』, 도서출판 신천지, p. 52, p. 50, p. 37)

## 나. 계시론

① 이 씨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씨는 이처럼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신천지, p. 26, 1995). 이 씨처럼 비유 풀이를 강조하여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가짜 재림주들의 공통적인 주장으로, 이는 이 씨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이지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교주를 재림주로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와야 하고, 구름을 타고 오셔야 하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도 울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짜 재림주들이 비유풀이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을 신격화하듯 이 씨도 비유풀이를 통하여 자신을 재림주로 만들고 있다.

② 이 씨는 직통계시자이다. 많은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직통계시성이다. 이 씨 역시 자신이 증거한 책은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거한 것이라고 하였고(이만희, 『계시록의 실상』, 도서출판 신천지 p.3), 또한 “필자(주: 이만희)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요 6:45)을 본 책 『성도와 천국』에 실어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것이니 보고 깨달아 그토록 원하는 소망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1)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책은 직통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 일이지요, 천국의 비밀이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제일의 책이지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이다. 천국에 소망을 둔 자라면 한번은 꼭 읽고 깨달을 영원한 복음이다”(위의 책, p.22)라고 하였다.

## 다. 기독교론

① 이 씨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한다. 이씨의 모든 교리는 자신을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씨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어떤 인간 육체에 임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바로 자신에게 영으로 임하신 것이 재림이라고 함으로 자신이 재림주가 되는 것이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

천지, pp. 77~78).(이만희, 『계시』, 도서출판 신천지, p. 43, p. 95).

② 이 씨는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한다. 계시록 12장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남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아이를 낳은 여자가 뱀의 뱃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간 양육 받게 된다는 말은 그가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입장에서 약속의 목자(주: 이만희 씨를 말함)인 이 아이 앞에 먼저 온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이만희, 『계시』, 도서출판신천지, p. 221)라고 하였고, “초림 예수님은 육적인 말구유에서 나셨지만, 오늘날의 주인공 곧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이곳 영적 말구유에서 탄생된 것이다. … 그러므로 만 백성은 이 아이(남자) 곧 철장을 받은 사명자(주: 이만희를 말함)에게 배워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된다(마 7:21).”(이만희, 『계시』, 도서출판 신천지, p. 224).

#### 라. 구원론

① 이씨는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씨는 초림 때는 예수님을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재림 때인 지금은 한 목자인 교주 이씨를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 95, p. 96).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보혜사; 이스라엘-주: 이만희를 가리킴) 곧 승리자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만희, 『계시록의 진상』, 도서출판 신천지, p. 52).

“성도는 하나님의 편지 성경의 약속을 먼저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한 목자(요 16:14,; 계 10:11)와 성전(계 15:5)을 찾아 증거를 받아야 한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 113).

② 이씨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씨의 구원론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만희 씨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참 목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의 피로 만들어주는 새언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가 그렇게 강조하는 새 언약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약 즉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 자신이 혈서로 써서 만들었다는 새 언약서를 말한다(『신천지

발전사』, 도서출판 신천지, p. 49). 이씨가 말하는 새 일은 모든 교회나 목자가 다 끝나고 한 목자가 나타나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 씨 자신을 참 목자로 믿고 이씨의 집단에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다(위의 책, p. 107, p. 108, p. 111, p. 112).

#### 마. 종말론

① 이씨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한다. 이씨는 노아로부터 모세까지의 일들을 심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신을 구원자, 심판자로 신격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씨는 이 시대에는 교주 자신을 믿어야 구원이며 교주 이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주장이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91, p. 93, p. 95)

② 이씨는 종말이 시대마다 온다고 주장한다.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한 세대가 올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다. 즉 시대마다 여러 번의 종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의 이러한 주장은 지구의 종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 그 인물에 의하여 그 시대의 종말이 온다는 주장이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92, p. 93).

③ 이씨는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고 한다. 이씨의 말세 심판 교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로서,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라고 한다(이만희, 『성도와 천국』, 도서출판 신천지 pp. 111~112).

#### 4)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에 대한 연구 결론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1 벽산빌딩 5층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의 대표요, 교주인 이만희(1931년 경북 청도 출생) 씨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서, 인치는 천사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보혜사라고 한다. 또한 이씨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한다. 결국 이 씨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고,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고 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재림주이다.

이만희는 한국교회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이단으로서 모든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기타 자료

다음은 인터넷신문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http://www.amennews.com))이 “ ‘신천지 추수꾼’ 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인터넷신문 「교회와신앙」, 정운석, 2007년 6월 4일)를 요약한 것이다.

인천 J장로교회 P목사는 믿을 만한 동료 목사로부터 경악할 만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자신의 교회에 전도왕으로 이름을 올린 A신도가 사실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추수꾼(신천지측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정통교회에 보낸 신도: 편집자 주)이라는 정보였다. 당장 A신도를 불렀다. ‘신천지’ 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A신도는 “목사님이 순수하게 교회에 다니는 나를 의심하다니 너무 서운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절대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고 잡아땀다. P목사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조건을 내세웠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단상담소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상담에 응해만 준다면 믿고 받아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신도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단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며칠이 지난 후 이 신도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신도는 P목사가 자신을 신천지 추수꾼으로 매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P목사는 “이젠 추수꾼들이 교회 전도왕까지 차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천지 추수꾼에 대한 경험은 J장로교회 P목사만이 아니다. 이는 거의 전국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수꾼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방법은 다양했다. ... 신천지 전도특공대 출신의 박현진 씨(가명, 25)의 경우 의심을 사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전도당하기’가 가장 좋았다고 꼽았다.

“전도대성회 등 교회의 특별 행사 기간에 교회를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장로·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간다. 콘셉트를 생각해 놓기도 한다. 주로 ‘이사를 왔는데 다닐 교회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초신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초신자라고 하면 포교에 지장을 받는다.”

한 교회에 추수꾼이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뤘

갈 것이냐에 따라 이들의 활동성격은 조금씩 달라진다.

단기포교계획의 경우 추수꾼은 정통교회에 들어가 ‘안테나’ 역할을 주로 해낸다. 신천지에 20여년간 주요 요직에 있다가 최근 탈퇴한 D 씨는 본 사이트([www.amennews.com](http://www.amennews.com)) 「교회와 신앙」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회에 들어간 추수꾼은 절대로 직접 전도를 하지 않는다”며 “그가 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모든 정보, 즉 신도들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정리해 또 다른 신천지 신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수꾼은 ‘정보제공자’의 역할만 하고 직접 포교 등은 교회밖에 있는 또 다른 신천지인에게 맡긴다는 얘기다. 이것이 교회안의 추수꾼 색출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교회는 추수꾼에 의해 교회 정보 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신천지측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당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포교계획의 경우 추수꾼이 교회내부에서 주요요직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박현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수밭(추수꾼의 활동 대상이 되는 정통 교회를 의미한다: 편집자 주)에 들어가면 1년 정도는 신천지측에 정보만 주는 활동을 한다. 그 외에 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은 교회안에서 전혀 하지 않고 교회 담임목사님과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한다. 청년의 경우 리더, 장년의 경우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장을 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양육할 교회식구들이 생기고 신뢰가 구축되면 은밀하게 신천지 말씀을 가르친다. 정통교회 구역장으로 추수활동을 하던 여자는 자신의 구역원 17명을 신천지로 미혹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천지에 미혹된 정통교회의 구역원들이 또다시 그 교회에 눌러 앉아 그대로 추수꾼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그 교회의 상황은 심각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로 들어온 추수꾼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은 누구이며 반대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D씨는 가장 포교하기 쉬운 사람으로 △교회에 적대감이 있고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들과 트러블이 있으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꼽았다. 교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도 주요 타깃이 된다. 반면 △목사님을 신뢰하고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구역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발각되거나 드러난 추수꾼들은 어떻게 치리하고 내보낼 것인가? 선부른 접근은 금물이다. 추수꾼들은 절대로 자신을 ‘신천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임웅기 전도사는 ‘신천지 신도분별과 치리’라는 자료에서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출교를 시켜야 하며 그 사람의 사진과 그가 남긴 문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남겨 놓고, 교회측에서도 그 사람과 관련한 사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뒤편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한 그는 “이렇듯 추수꾼에 미혹된 교회 성도가 있다는 게 파악되면 가족과 상의하여 반드시 이단개종 상담을 통해 회심을 시키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임 전도사는 “교회 추수꾼 및 신천지에 미혹된 신도들은 출교를 당할 때 전화 및 핸드폰 문자를 통해 ‘담임목사님이 나를 신천지 신도라고 음해한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시켜서 힘들어 나간다’, ‘교회에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낸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려 교회분열을 조장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회를 비롯한 교회 기관장 및 임직원 그리고 성도들은 유언비에 속지 말고 더욱 담임목사님과 당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5. 통일교(문선명)

| 주요인물                      | 관련기관 · 학교 · 사업체                                                      | 사이트                  | 관계언론                      |
|---------------------------|----------------------------------------------------------------------|----------------------|---------------------------|
| 문선명<br>한학자<br>문현진<br>(4남)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br>한국대학원리연구회<br>선문대학교, 용평리조트,<br>세일여행사,<br>리틀엔젤스예술단, 일화그룹 | www.<br>tongil.or.kr | 세계일보<br>워싱턴 타임즈<br>UPI 통신 |

문선명 씨는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자신의 부하라며 자신을 재림주요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통일교의 교주다. 통일교의 공식적인 단체 명칭은 1954년에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1994년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주로 ‘스포츠’를 이용한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피스컵 축구대회, 피스스타컵, 피스퀵 등이다. 전남 여수에는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오션 파크 리조트 건설’과 ‘화양 지구 300만평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은 물론 기독교단체와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문선명 씨의 4남인 문현진 씨(세계평화청년연합회 회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통일교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현진 씨는 현재 통일교측 규모 있는 대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통일교 원리 강연회 강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는 이미 예정통합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상태다.

다음은 예정고신 교단의 연구 발표 내용 요약이다(『유사종교연구』 1-4합본, 1992년, 386-387쪽).

통일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약성경을 가리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심령과 지능이 극도로 낮았던 그 시대인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의 과도기적인 교과서로 현대인들을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법에 따른 새 진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원리강론」을 성약성경(成約聖書)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참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해(요 1:9)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달의 빛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인데 해와 달

이 빛을 잃는다(마 24:29)고 한 것은 예수와 성령이 주신 신약성경이 빛을 잃게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예수와 성령이 오므로 구약의 말씀이 빛을 잃듯 예수가 재림하므로(문선명의 출현) 초림 때에 주신 말씀이 그 빛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성경말씀의 충족성, 완전성을 부인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들은 이단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흥과 발전은 그만큼 많은 생명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바 그들을 견제하고 또 거기에 빠진 자들을 적극 구해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2020 이단백서(기획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발행일 2020년 9월 1일, pp109-115, 198-208, 221- 230, 292-293)